

---

# 2017년도

## 재단 내 사업 관련 연구 간담회

---

일시 : 2017년 11월 21일 (화)

장소 : 서울복지타운 5층 회의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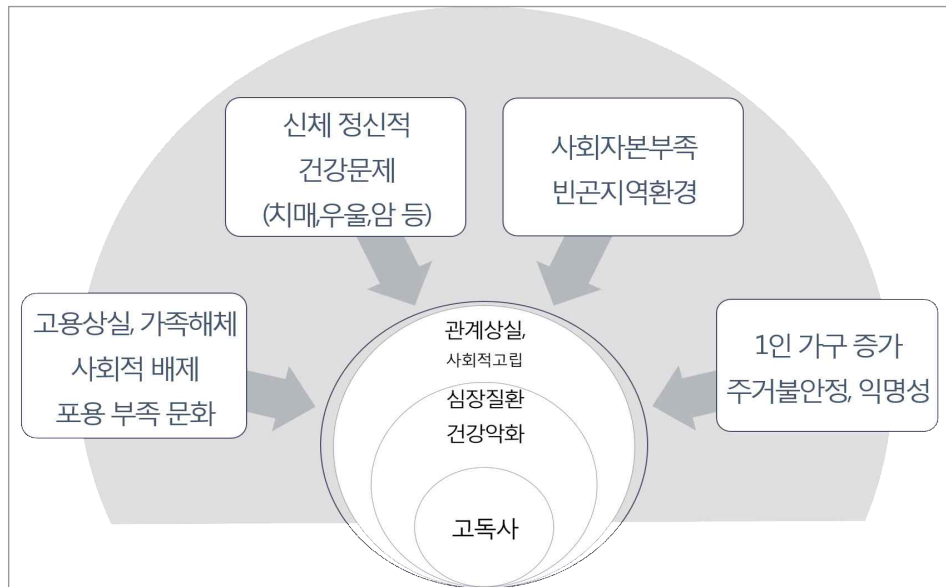
1.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송인주 연구위원	.....	1
II.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성과 연구	김미현 선임연구위원	.....	5
III.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연구	서종녀 선임연구위원	.....	8
IV.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발전방안 연구	현명이 연구위원	.....	11
V.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현명이 연구위원	.....	14
VI.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김현승 연구위원	.....	19
VII. 서울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자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현승 연구위원	.....	22

# 1.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송인주

구분	내용																																																								
연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기간 : 2017년 2월~11월</li> <li>○ 연구 목적 : 고독사 위험군의 학술적 분류와 실천적 대응방안 모색</li> <li>○ 연구 내용 : 사회적 고립가구 개념정의, 주민워크숍을 통한 참여연구, 지역중심 대응방안 마련,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li> <li>○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주민참여연구(Action research), 전문가 간담회</li> </ul>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 체계 및 추진내용</li> </ul> <table border="1" data-bbox="336 913 1430 1223"> <thead> <tr> <th>내용 \ 주체</th> <th>연구자</th> <th>서울시</th> <th>찾동추진지원단</th> <th>자치구</th> <th>사범동</th> <th>동주민</th> </tr> </thead> <tbody> <tr> <td>설명회, 주민모집</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역조사, 주민참여워크숍준비, 자료집제작</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사전모임, 주민회의, 주민계획</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주민워크숍 및 주민계획 수립 및 모임결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주민모임 결성 및 주민활동 진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주민활동 분석 및 전문가 간담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추가 문헌연구 및 보고서 작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워크숍 및 주민계획 : 3개동 동, 시민단체, 주민 모임 결성 및 워크숍(총 16회) 및 주민계획 수립, Action Research 참가 주민의 변화 설문조사</li> <li>○ 주민활동 분석 및 지역중심 고립가구 지원방안 도출</li> <li>○ 전문가: 심리부검, 정신보건, 특수청소, 현장 활동 시민의 의견수렴으로 결과보완</li> </ul>	내용 \ 주체	연구자	서울시	찾동추진지원단	자치구	사범동	동주민	설명회, 주민모집							지역조사, 주민참여워크숍준비, 자료집제작							사전모임, 주민회의, 주민계획							주민워크숍 및 주민계획 수립 및 모임결성							주민모임 결성 및 주민활동 진행							주민활동 분석 및 전문가 간담회							추가 문헌연구 및 보고서 작성						
내용 \ 주체	연구자	서울시	찾동추진지원단	자치구	사범동	동주민																																																			
설명회, 주민모집																																																									
지역조사, 주민참여워크숍준비, 자료집제작																																																									
사전모임, 주민회의, 주민계획																																																									
주민워크숍 및 주민계획 수립 및 모임결성																																																									
주민모임 결성 및 주민활동 진행																																																									
주민활동 분석 및 전문가 간담회																																																									
추가 문헌연구 및 보고서 작성																																																									
주요 연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고독사 연구결과 : 고독사를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살아가다가 혼자 죽고 일정기간 후에(약 3일) 발견된 죽음으로 정의. 고독사는 남성 45~64세에서 주로 발생하며, 최초발견자는 집주인, 관리인, 이웃주민 등 지역주민이고,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임대아파트에서 주로 나타나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구는 확실사례의 경우 관악구, 노원구 등이었고, 의심사례의 경우는 강남구, 은평구, 등이 높았음. 질병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당뇨, 암, 등), 최초발견자를 중심으로 한 주민 안전망 구축 및 민관이 결합한 안전확인파 지원체계 마련으로 예방적 접근을 실시하고 고독사 및 무연고자에 지역주민의 애도를 지원토록 하는 접근 필요.</li> <li>○ 연구의 주요 방향 : 고독사가 다수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적 발굴과 지원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과 지원방안을 구체화 하도록 함.</li> <li>○ 이론적 분석 : 고독사 위험 원인과 사회적 고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고립은 집에서 나가지 않는 물리적 고립(Waite and Hughes, 1999; Nicholson,2009), 비공식 체계와의 교류 고립(Vincenzi and Grabosky,1987; Cornwell and Waite, 2009; Hawthorne, 2008; 이묘숙, 2012), 소속된 활동과 일이 없는 사회 참여 고립(Benjamins, 2004) 으로 구분함.</li> </ul> </li> </ul>																																																								

구 분	내 용
-----	-----



-사회적 고립의 예측요인 : 개인적 요인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물리적 고립을 낳는다. 개인은 인지 기능적 문제로 우울증이나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Howat et al. 2004), 만성질환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등 신체적 문제((박연환, 강희선, 2008)로 고립

고립의 예측요인은 거주지 특성 및 주거환경과 관련성이 높음. 거주지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사회적 고립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Nicholson, 2009)와 함께 주거 특성이 집합주택으로 익명성이 높은 주거지 일수록 고립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됨.

-지역사회 요인 : 박미진(2013), 박정민 외(2015) - 지역사회의 이웃환경의 불리함(빈곤비율), 이웃환경 상태, 사회적 자본 등, 박미진(2013)의 연구 - 노인의 개인적 요소보다 지역사회적 요소(기초수급지수, 인구적 특성, 인프라 특성 등)가 노인의 건강과 우울 등에 더 영향 미침

-고립이 원인이 되는 결과 : 고립감(외로움)은 치명적인 질병 낳음. 미국 성인들 중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성인인구의 40%를 넘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건강 빈곤층이 될 수 있는데, 분노와 우울을 함께 겪고 외로움은 심장병 위험을 29~30%까지 높인다고 밝힌바 있다.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중년과 노년기에 많이 나타난다(Khullar, 2016). 일본 후생성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우울증, 강박성 장애, 폐니 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로서 불안과 공포감에 빠져 타인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은둔하는 경우임. 장기화되어 낮밤이 바뀌어 생체 리듬이 파괴되며 의욕이 저하되고 더 심한 정신병적 특성이 더욱 강화됨(김건, 2013).

○ Action Research 성과 : 주민활동 성과 및 활동내용과 주민변화

- 참여주민 : 3개동 총 40명, 주민 평균 거주기간 22년
- 주민구성 : 통장 80%, 원룸사업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 주민활동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네트워크 활동(추천의뢰, 방문, 상담)
- 사례연구 : 지역사회 환경 요인 분석, 주민특성 분석, 특성에 따른 접근방법
- 지역 특성 반영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주민계획 확정

대상 : 40대~64세 1인가구, 남성, 만성질환, 정신질환, 알콜중독자, 일용직 등

내용 : 주민활동가 모임구축, 고립가구 발굴 매뉴얼 도출, 고립가구 발굴지원 네트워크 마련 계획, 방문 거절자 안전 확인 방안, 긴급 식사 지원, 긴급 연락망 구축 등

**구 분** **내 용**

지역별 주민계획 내용

[대학동 고립가구특성과 지원] 고시원, 확인어려움, 의도적 고립고착 주민중심 관찰네트워크(발소리 나누리)와 발굴 지원 시스템 구성 운영 자립지원 위한 공동체 활동 마련	[하계1동 고립가구특성과 지원] 임대아파트, 확인가능, 만성 질환과 고립(정신, 만성, 암) 다수 통장중심 안부확인방안구성, 응급지원체계(발굴가구 위기연락망) 구축	[가산동 고립가구특성과 지원] 쪽방, 외국인, 확인어려움, 부채, 이동성 높은 가구 통장과 주민중심 골목반상회로 발굴 체계 및 반찬, 식사 지원체계 마련
---	---	---

- 주민변화 : 주민참여연구(action research)참여자 지역과 자기인식조사(Stringer, 2007, pp23~24)  
응답자 : 총 36명(3개동 참여주민), 해당지역 평균 22.3년 거주, 여성32명, 남성 4명  
문항별 평균 : 5점척도/ Pride(자신의 가치) 3.92, Dignity(지역내 존재감) identity(지역사회정체성) 3.67, Control(자원활용과 조정능력) 3.57, Responsibility(능력향상) 3.74, Unity(동질감, 연대감) 3.70, Place(장소의식) 3.70, Location(지역이해 및 유대감)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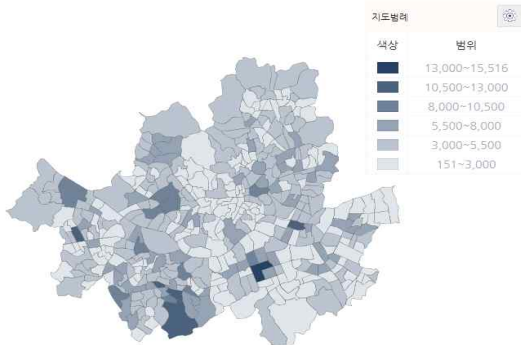
○ 주민방문 사례를 통한 고립의 유형분석

- 자발적 관계상실 고립형 (목적성, 성격특성) : 자발적 특성으로 시작한 고립이나 목표달성 및 취향 유지가 되지 못한채 고착되어 심화됨, 자존심이 세고 이웃에게 더욱 도움을 요청하지 못함, 사각지대 지원대상이나 발굴 어려움
- 비자발 생애사건 고립형 (건강, 이혼, 사고, 실직, 부채 등 위험을 겪고 고립된 후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더 나빠짐) : 비자발적 생애 이벤트 후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 사각지대 지원 대상
- 만성 장기 질환 고립형 (정신장애, 발달장애, 당뇨, 암, 알콜릭 등 질환을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 : 공공지원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약물관리가 안될시 문제가 커질 수 있음

○ 위험지역 통계 분석 및 향후 확대 방안

- 1인가구 및 주거 특성 분석을 통한 위험지역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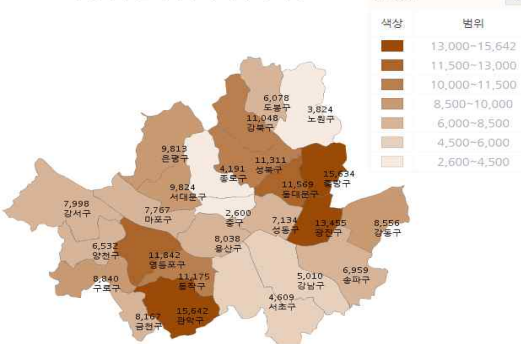
2017서울시 동별1인가구수(행정자치부)



□ 1인가구 동별 특성 분석

- 동별 1인 수 : 관악구 신림동(현재 대학동), 봉천동, 강남구 역삼1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강서구 화곡동으로 나타남
- 주로 대학중심, 다가구 및 원룸 밀집지역

2015서울시구별다가구주택수(통계청)



□ 다가구 구별 현황

- 관악구, 중랑구, 광진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순
- 주택유형중 다가구에는 원룸 포함되며 주택에 여러 가구를 임대 주는 주거형태
- 다가구 부동산계약현황 최소주거 14제곱미터 이하 주거도 다수임

구분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table border="1" style="font-size: small; margin-left: 10px;"> <thead> <tr> <th>색상</th> <th>범위</th> </tr> </thead> <tbody> <tr><td>Dark Brown</td><td>268-298</td></tr> <tr><td>Brown</td><td>238-268</td></tr> <tr><td>Light Brown</td><td>209-238</td></tr> <tr><td>Orange</td><td>179-209</td></tr> <tr><td>Light Orange</td><td>149-179</td></tr> <tr><td>Yellow-Orange</td><td>119-149</td></tr> <tr><td>Yellow</td><td>89-119</td></tr> <tr><td>Light Yellow</td><td>60-89</td></tr> <tr><td>Lightest Yellow</td><td>30-60</td></tr> <tr><td>White</td><td>0-30</td></tr> </tbody> </table> </div> <div style="flex: 1;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10px;"> <p>□ 고시원 동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원 밀집지역은 주거취약지역이면서 고립가구 1인가구 수가 높은 지역임</li> <li>- 관악구 대학동은 298개소, 동작구 노량진1동 181개소, 강남구 역삼1동 120개소 등으로 나타남</li> </ul> </div> </div> <p>○ 사회적 고립 이웃에 대한 접근의 방향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 지원을 위한 일상적 접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주민안전망:민감성 증대(교육과 인식개선), 관계망과 연락망 구축 확인과 일상적보호</li> <li>(2)지역 특성과 문화에 맞는 계획과 접근 필요 : 수퍼, 고시원총무협회, 이발소, 식당, 풀뿌리 마을 단체, 주민모임 등</li> <li>(3)공적 전달체계의 결합 방식 : 찾동, 소방서, 경찰서, 복지관, 정신건강, 보건소</li> <li>(4)확대해야할 체계 : 지역 병의원, 찾아가는 의사(마포구, 성동구 사례), 일자리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달체계의 종합적인 결합</li> <li>- 1인가구, 주거취약가구(고시원포함)(14제곱미터 이하) 주거 밀집지역 관심지역선정</li> </ul> </li> </ol> </li> <li>(1)현재 시범동 : 관악구 대학동, 노원구 하계 1동, 금천구 가산동 (3개동)</li> <li>(2)향후 확대동 : 관악구 신림동, 동작구 노량진1동, 강남구 역삼1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광진구 구의동, 화양동, 중랑구 면목동, 중곡동, 서대문구 신촌동, 강서구 화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창랑리동 (12개동) 총 15개동 각 단위별 역할과 지원방안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서울시 : 종합계획과 동별 활동에 대한 비교와 촉진 및 시범활동 지원</li> <li>(2)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공적 결합이 필요한 전달체계 및 추가할 체계와 협력</li> <li>(3)주민모임 : 동 및 시민사회를 통한 주민모임을 통한 민간 안정망 구축</li> </ol> </li> </ul> <p>○ 그 밖의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 통계 마련, 고독사 및 고립가구 지원법 시급, 지역중심 계획마련,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강화 필요.</li> </ul>	색상	범위	Dark Brown	268-298	Brown	238-268	Light Brown	209-238	Orange	179-209	Light Orange	149-179	Yellow-Orange	119-149	Yellow	89-119	Light Yellow	60-89	Lightest Yellow	30-60	White	0-30
색상	범위																						
Dark Brown	268-298																						
Brown	238-268																						
Light Brown	209-238																						
Orange	179-209																						
Light Orange	149-179																						
Yellow-Orange	119-149																						
Yellow	89-119																						
Light Yellow	60-89																						
Lightest Yellow	30-60																						
White	0-30																						
<p>논의사항</p>	<p>○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는 현대사회 문제의 농축적 결과 산업구조, 일자리 부족, 거시적 환경 문제와 초 핵가족화, 혈연관계의 단절, 1인 자녀, 비혼 등 가족 구조변화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남, 금융취약계층, 고립 1인가구 등의 발생 원인 측면에서 현대사회 다양한 문제를 농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임 : 도시의 익명성으로 문제는 더 심각하고, 고립의 문제제기는 한국 뿐 만 아니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문제로 가시화 됨</p> <p>○ 고립과 고독사는 보건, 복지, 서비스 전달 방식에서의 새로운 합의를 줌</p> <p>연령을 넘어선 지원체계 마련, 지역중심의 네트워크로 해결방안 도출, 찾아가는 접근이 보건, 의료, 상담에서도 필요한 영역, 코 하우징 등 주거정책 방향의 필요</p> <p>○ 이에 재단의 각 부서에서도 관련 영역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전달체계 안에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심이 필요함</p>																						

## 11.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성과 연구

김 미 현

구분	내용
연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기간 : 2017. 04~11</li> <li>○ 연구 목적 : 서울디딤돌 사업의 네트워크 성과 및 지역공동체 기여도를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개선 방안을 제시함</li> <li>○ 연구 내용 : 구별 민관네트워크 협력 유형 및 내용, 이용자 및 기부업체의 지역사회 연대감 및 사회적 자본 변화 측정 등</li> <li>○ 연구 방법 : 관련 자료 검토, 간담회, FGI, 인터뷰 등</li> </ul>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협약 : 재단 내 복지공동체팀/찾동추진지원단,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등</li> <li>○ 자문회의 : 3회 실시(11/23, 4차 자문회의 예정)</li> <li>○ 간담회 1회, 네트워크 회의 참석 7회, FGI 6회, 인터뷰 40회</li> </ul>
주요 연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별 네트워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회의 참석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유 및 공유자원 활용방안 논의</li> <li>· 디딤돌사업의 중요성 및 역할 상기</li> <li>·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li> </ul> </li> <li>- 자치구별로 구의 제반 환경에 따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노원구 및 성동구를 제외하고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로구                   <p>공립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약 16개 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구로희망재단이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 관 주도로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였으나, 최근 관의 관심이 떨어져 다소 침체된 분위기임</p> </li> <li>· 노원구                   <p>월계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약 13개 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 상계/중계/하계 등 3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함. 월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실무자의 디딤돌 사업 투입비중이 낮음</p> </li> <li>· 성동구                   <p>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약 17개 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 참여 기관수가 가장 많으며 실무자들의 평균 경력도 가장 오래되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개발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민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함. 민관이 주기적으로 함께 공동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연계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음</p> </li> <li>· 양천구                   <p>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5개 기관이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 구에서는 네트워크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어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상황임.</p> </li> </ul> </li> </ul> </li> </ul>

구 분	내 용
	<p>네트워크 회의 주제 또한 민관협력에 관한 것은 거의 없으며, 주로 자원 공유 수준이라 관의 참여가 저조함.</p> <p>· <b>영등포구</b></p> <p>네트워크 회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2년 전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기관을 맡으면서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음. 실무자들의 디딤돌 경력이 짧아 사업이해도 및 운영 상황이 활발한 편은 아니나, 구의 찾동추진지원단이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하면서 민·관 합동회의를 기획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음</p> <p>○ <b>디딤돌사업의 지역공동체 기여도(성과)</b></p> <p>- 네트워크 회의의 성과와 마찬가지로 디딤돌 사업의 지역공동체 기여도 역시 노원구와 성동구를 제외하고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적지 않은 실무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p> <p>- <b>기관내부 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딤돌사업을 통해 복지관 홍보를 하게 됨</li> <li>· 사업의 의의를 내부적으로 되새길 수 있는 기회</li> <li>· 디딤돌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해 짐</li> </ul> <p>- <b>지역사회 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자원 매칭으로 만족도 배가</li> <li>· 일부 이용시민의 경우 재능기부, 봉사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형태가 나타남</li> <li>· 후원업체들의 이웃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가(후원업체 추천, 다양한 기부 등)</li> <li>· 기부 및 나눔문화 확산(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보람 등)</li> </ul> <p>○ <b>디딤돌 사업의 한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 시정사업으로 지정, 자발적 커뮤니티에서 실적 중심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음</li> <li>- 평가에서 제외, 기관 내 사업 비중 낮아짐(신입 담당, 담당자 교체 빈번함)</li> <li>- 실무자 개인이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li> <li>- 기관 내 부서별 업무 협조 미흡</li> <li>- 이용자·후원업체 관리 어려움(교육부재,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연대감 약함)</li> <li>- 일반 시민 인지도 낮음(나눔가게 현판을 걸어놓아도 알아보지 못함)</li> <li>- 민관협력 미흡에 따른 중복 자원개발로 인한 업체 피로도 증가 사례 발생</li> </ul> <p>○ <b>월계종합사회복지관 모범사례</b></p> <p>★ <b>디딤돌사업의 질적 성과</b></p> <p>- <b>이용시민의 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딤돌사업은 나눔생태계를 이루는 사업이라는 인식('삼각관계')</li> <li>· 디딤돌사업의 혜택뿐 아니라 조별 봉사활동으로 인해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낌 (경로식당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디딤돌 사업에 남아있음 : 식사+정서적 지원)</li> <li>· 지역사회 및 후원업체에 대한 관심 증가</li> </ul> <p>- <b>후원업체의 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 인지도 및 신뢰도 증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가</li> <li>· 이용시민 및 후원업체 간 관심 증가</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원지속 및 확대 의지 증가</li> <li>· 나눔 문화 확산 체감</li> <li>★ <b>디딤돌 사업의 활성화 요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딤돌 사업의 목적이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라는 인식을 명확히 함</li> <li>- 큰 규모의 일시적·비정기적 후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지속가능한 후원업체 발굴</li> <li>- 이용시민의 접근성도 매우 중요(영구임대단지 내 상가)</li> <li>- 기관차원의 인식 및 유기적 대응(팀 간 긴밀한 상호협력)</li> <li>- 디딤돌사업의 위상/비중 높음 : 경력 있는 실무자 배치, 업무비중 80% 이상</li> <li>- 정기적·심층적 교육 실시 : 이용자 및 후원자 정기교육</li> <li>- 이용자 자조모임 조직 : 교육, 봉사활동, 캠페인, 간담회(육구조사), 친목활동 등</li> </ul> </li> </ul>
<p>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재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나눔공동체 구축을 위해 디딤돌의 명칭을 ‘나눔가게’로 변경하고 민간거점형, 동중심형으로 나눔가게를 추진 중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등 몇몇 거점기관을 제외하고는 후원업체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 부재, 실무자의 잦은 변경,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 등으로 발굴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임</li> <li>- 지속가능한 자원발굴 및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 월계모범사례와 같이 이용자 및 후원자, 관계자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자원발굴뿐 아니라 자원의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li> </ul> </li> <li>○ <b>17년 디딤돌사업이 서울시 평가에서 제외, 거점기관들의 관심이 줄어든 상황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여부를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li> <li>- 평가에 포함된다면, 질적 평가지표 보완 필요</li> <li>- 발굴 및 연계 건수 등의 실적 위주 평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조성 관련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원업체 및 이용자 간 연계의 지속성</li> <li>· 지역사회 내 기관간 자원의 공유 및 연계 정도</li> <li>· 기부·나눔 문화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등</li> </ul> </li> </ul> </li> <li>○ <b>디딤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구별 네트워크 지원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딤돌 사업(나눔가게) ‘민관협력’ 시범사업으로 2~3개 기관 지정, 담당 인력지원</li> <li>· 현, 네트워크회의 지원비 → 찾동 및 각 거점기관 업무추진비 활용, 민관협력 회의비로</li> </ul> </li> <li>- 네트워크회의 지원을 계속할 경우, 현재와 다른 방안 모색(교육 등 거점기관 역량강화)</li> <li>- 재단 내 실무자의 주도적이며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가능한 3년 이상 담당하도록</li> </ul> </li> </ul>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업명칭 변경(서울디딤돌 → 우리동네 나눔가게)에 따른 보고서 제목(안)</b> →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나눔가게) 성과 연구</li> <li>○ <b>찾동 후속연구 제안</b> : 지속가능한 ‘나눔가게’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li> </ul>



### 111.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연구

서 종 녀

구 분	내 용
연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기간 : 2017. 3. ~ 12.</li> <li>○ 연구 목적 : 2015년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1차 적금 만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통장 사업성과를 검토하고 사업 운영의 쟁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도출</li> <li>○ 연구 내용 : 사업 운영 현황, 참가자 변화분석, 사업성과 및 개선방안 도출</li> <li>○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설문·면접조사</li> </ul>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협약 : 자립복지팀 업무협약(5월)</li> <li>○ 자문·실무회의 : 자문·실무회의(각 2회, 8월, 11월 예정)</li> <li>○ 조사방법 : 설문조사(최종 분석자료 139명), 면접조사 20명(만기자 8명, 참여자 12명)</li> <li>※ 본 설문조사 결과는 참고용으로 제시(현재 데이터 클리닉 중)</li> </ul>
주요 연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목적: 청년의 자립지원 수단 중 하나로서 저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교육, 주거, 결혼, 창업 및 운영자금)</li> <li>- 지원서비스: 필수교육 이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활동 진행</li> </ul> </li> <li>○ 분석결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필요성과 인식은 긍정적, 즉 자립의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고 금융교육과 재무컨설팅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인식</li> <li>-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가를 다른 사람한테 권유할 의향이 있고, 추천 이유는 ‘저축하는 금액 대비 적립금이 은행 이자보다 높기 때문’</li> <li>- 2015년과 2017년 시점 비교 결과, 부채 있는 비율(60.1%→74.8%)이 높아졌고 부채 비용 또한 15.7% 증가(주거대출비용 14.5% 상승)</li> <li>- 참가자의 근로소득(44.3%)과 생활비 지출(25.%)이 증가하였고, 근로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 비율은 2015년 대비 2017년 136.%p 상승</li> <li>- 참가자의 저축인식 변화 조사결과를 보면, 저축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변화가 없는 반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한 저축 비율은 낮아짐</li> <li>- 청년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인식(개인 심리상태, 현재 나의 모습, 만족도 등)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미래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2015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li> </ul> </li> </ul>

구 분	내 용
	<p>[분석 결과]</p> <p>○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필요성 및 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통장 사업이 자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4.4%(4점 만점에 평균 3.47점)</li> <li>-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가를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8.6%였고, 주된 이유는 ‘저축하는 금액 대비 적립금이 은행 이자보다 높기 때문(94.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융, 재무컨설팅, 주거 등 교육을 통해 미래를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기회 제공(45.9%)’, ‘저축 이외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문화체험, 주거개선서비스 등 제공되기 때문(43.8%)’ 순</li> <li>- 금융교육(합리적인 소비와 올바른 저축습관 형성)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87.3%(4점 만점에 평균 3.08점)</li> <li>- 재무컨설팅(예·적금, 대출, 보험, 노후 대비책 현황 점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84.6%(4점 만점에 평균 3.04점)</li> <li>- 통장사업 참가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평균 횟수는 1.76회</li> </ul> <p>○ 참가자 변화분석 설문조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응답자 중 여전히 부채가 있는 참가자는 53.6%, 부채가 발생한 참가자는 21.0%로 전체 응답자의 74.6%가 부채 있음(부채 갚은 응답자는 6.5%, 부채가 없는 응답자는 18.8%)</li> <li>- 부채가 여전히 있는 응답자는 전체 부채금액은 2년 전보다 15.7% 증가했고, 주거대출 비용은 14.5% 증가한 반면, 학자금 대출 비용은 -43.1% 감소(중위수 기준)</li> <li>- 2015년 대비 2017년 기준 부채가 발생한 응답자는 2015년 중위수 대비 학자금 대출 비용보다 주거대출 비용 상승</li> <li>- 부채 비용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전체 연령에서 부채 발생</li> <li>- 참가자의 근로소득은 2015년 기준 44.3% 증가했고, 연령별로 보면, 23세 이하가 66.7%, 24~29세가 56.9%, 30세 이상이 20.4% 근로소득 증가 (2015년 기준 연령)(중위수 기준)</li> <li>- 참가자의 생활비 지출은 2015년 기준 25.0% 증가했고, 23세 이하가 80.0%, 30세 이상이 34.9% 증가(2015년 기준 연령)(중위수 기준)</li> <li>- 소득대비 생활비 지출 비율은 2015년 110%인 반면, 2017년은 125%로 2015년 대비 13.6%p 증가</li> <li>- 참가자의 저축 인식 차이를 보면,</li> <li>- &lt;저축 인식&gt; 저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는 반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해 저축을 하는 비율은 2017년에 더 낮아졌고</li> </ul>

구분	내용
	<p>(<math>t=-3.1</math>, <math>p\text{-value}=.003</ma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개인 심리상태&gt; 나의 삶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약간 인식(<math>t=1.9</math>, <math>p\text{-value}=.061</math>)한 반면 내 삶을 지금보다 낮게 만들기 위한 노력(<math>t=-3.4</math>, <math>p\text{-value}=.001</math>)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math>t=-5.1</math>, <math>p\text{-value}=.000</math>)는 인식은 낮아짐</li> <li>- &lt;귀하의 모습&gt; 참가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 본인의 모습은 2015년 보다 상대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 좋은 성품,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음, 긍정적인 태도, 자신에 대한 만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반면,</li> <li>-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쓸모 있는 사람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함</li> <li>- &lt;만족도&gt; 가족간 관계(<math>t=-2.2</math>, <math>p\text{-value}=.033</math>), 직업(<math>t=-5.1</math>, <math>p\text{-value}=.000</math>), 사회적 친분관계(<math>t=-9.0</math>, <math>p\text{-value}=.000</math>), 건강(<math>t=-6.5</math>, <math>p\text{-value}=.000</math>) 등이 2015년 대비 2017년에 만족도가 낮아졌고, 전반적인 만족도(<math>t=-4.3</math>, <math>p\text{-value}=.000</math>) 또한 낮아짐</li> <li>- 2015년 대비 2017년 생활형편에는 인식의 차이(<math>t=-0.1</math>, <math>p\text{-value}=.936</math>)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미래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math>t=-3.7</math>, <math>p\text{-value}=.000</math>)이 높게 나타남</li> </ul>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다양화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li> <li>- 적립금 용도 : 교육비, 주거비 등 소득 대비 부채가 높은 생활비</li> <li>- 가입 금액 및 저축 기간 : 50,000원 ~ 100,000원, 최대 3년</li> <li>- 저축기간에 따른 저축 매칭(근로장려금) : 1년 1:1, 2년 1:1.5, 3년 1:2</li> <li>- 가입조건 : 최근 1년간 6개월 근로 또는 6개월 간 평균 근로소득(정부지원금 포함) 중위소득 50% 이하(2018년 836,000원/1인)</li> <li>- 지급 방법 : 1년 단위로 지급하여 부채 총액 인하</li> </ul> </li> <li>○ 저소득 근로청년의 ‘근로 유인 효과’와 ‘자립’ 목표 재설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근로유인 효과와 함께 자립 지원의 수단으로 운영</li> <li>- 청년의 취·창업은 안정성보다는 좀 더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청년의 자립지원은 일자리, 주거 등 포괄적인 사회보장 필요</li> <li>-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목표 재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된 목표에 따른 운영체계(사례관리기관, 교육 참여, 지원서비스 등) 검토 필요</li> </ul> </li> </ul>

## IV.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발전방안 연구

### 현 명 이

구 분	내 용
연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기간 : 2017. 2 ~ 10월</li> <li>○ 연구 목적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대두에 따른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li> <li>○ 연구 내용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li> <li>○ 연구 방법 :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포커스그룹인터뷰</li> </ul>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협약 : 재단 공공협력본부 장애인복지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등</li> <li>○ 자문·실무회의 : 학계, 현장 전문가, 자문·실무위원회 구성 및 개최(각2회)</li> <li>○ 인터뷰, FGI, 간담회 등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 주체별 실무자 포커스그룹인터뷰 2회 실시(27명)</li> </ul>
<p>주요 연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발달장애인) 중심의 절차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확대에 의한 입주절차 개선 필요, 당사자 중심의 입주절차로 개선이 필요</li> <li>-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을 지원하는 절차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세부내용 마련</li> <li>- 모든 장애인 당사자 대상 자립생활체험의 기회 제공, 지원서비스 검토, 입주지원위원회 개최의 절차로 개선</li> <li>- 일정기간 기존 프로세스 유지와 동시에 이용절차 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검토 후 개선안을 점진적으로 적용</li> </ul> </li> </ul>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re>                     graph LR                         subgraph "개선 전"                             A1[요구 확인] --&gt; B1[이용 신청]                             B1 --&gt; C1[현장 상담]                             C1 --&gt; D1[전환 서비스 지원 위원회]                             D1 --&gt; E1[주택 입주]                             E1 --&gt; F1[주택 퇴거]                         end                         subgraph "개선 후"                             A2[요구 확인] --&gt; B2[이용 신청]                             B2 --&gt; C2[사전지원 프로그램]                             C2 --&gt; D2[입주지원 위원회]                             D2 --&gt; E2[주택 입주]                             E2 --&gt; F2[주택 퇴거]                         end                     </pre> <p>&lt;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 전과 후&gt;</p> </div>

구 분	내 용
-----	-----

-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의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정방식 개선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증가로 인한 다형 주택 선정기준 마련 필요

○ 자립생활주택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 ▶ 자립생활주택 체험주택 운영
  - 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
  - 자립생활 의욕 고취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체험
  - 단기(5일~3개월 미만), 장기(3개월 이상~1년 미만) 등 체험 기간 다양화

유형	대상	기간	운영형태
단기 체험형	· 신체장애인, 경증발달장애 인 등	· 5일/1개 월/3개월	· 지역사회 거주 경험기회 제공 · 이용자 티오가 있는 주택(공실) 활용 · 일상생활관리 가능한 일상지원형
장기 체험형	· 중증발달장애인, 중복장애인 등	· 3개월 이상~1년 미만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 적인 서비스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필요한 집중지원형

-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형태(기존주택 공실활용 vs 신규주택 운영)
-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주체(운영사업자 운영 vs 거주시설 운영 vs 전환센터 운영)
- ▶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 체험기간 동안의 활동보조 등의 지원서비스 확대 필요

○ 자립생활주택 종사자 처우개선

- ▶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인건비 개선
  - 호봉체계마련, 각종수당 등을 신설하여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의 임금수준을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

II센터 종사자 연급액		2018년(95% 임금수준)				
		2018년 인건비(연 3%적용)	95% 수준	급여 차 액	코디네이 터 수	추가 인건비
1호봉	20,618	21,236	20,174	974	10	9,747
5호봉	22,183	22,848	21,706	2,506	10	25,060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연급액 19,200천원으로 가정함

- ▶ 적정인력 배치
  - 현재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업무는 입주자 지원, 행정업무, 주택관리 업무, 안전관리 업무,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수행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유형별 업무의 난이도는 상이하지만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인력 배치가 필요</li> <li>· 주택별 적정인력 배치를 위해 입주자 수, 입주자 현황(장애정도, 장애수준), 주택운영 수 등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력수를 분석할 필요 있음.</li> <li>▶ 복리후생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등을 지원필요</li> </ul> </li> <li>○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지급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유형별, 임대유형에 따른 운영보조금 지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급방식변경 검토 필요</li> <li>· 총액지원방식에서 분리지원방식 시범 추진</li> <li>· 주택유형 수, 지원인력 수, 입주자(인원수, 발달장애인 수)에 따른 차등지급</li> </ul> </li> <li>○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체계 마련, 슈퍼비전 체계 마련</li> </ul> </li> <li>○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자립생활 욕구과약, 자립생활주택 운영체계 개선, 지원인력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과약 및 모니터링(정기적)</li> <li>· 탈시설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수요와 공급현황 분석, 매칭 계획 수립 및 지원</li> </ul> </li> <li>▶ 자립생활주택 운영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중심의 자립생활주택 운영절차 개선(안) 마련</li> <li>·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안) 마련</li> <li>·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안) 마련</li> </ul> </li> <li>▶ 지원인력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생활주택 지원인력(코디네이터, 지원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li> <li>·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슈퍼비전 체계 마련</li> </ul> </li> </ul> </li> </ul>
<p>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생활주택 운영개선에 대한 보완사항 논의 필요</li> <li>○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제고(안) 논의 필요</li> </ul>

## V.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 현 명 이

구분	내 용																		
연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기간 : 2017. 2 ~ 10월</li> <li>○ 연구 목적 :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li> <li>○ 연구 내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능과 역할 재정립(안) 제안</li> <li>○ 연구 방법 : 문헌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가 조사</li> </ul>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계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등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li> <li>○ 장애인부모회 등 유관단체 간담회(4회)</li> <li>○ 한국청각장애인부모회 대표 간담회를 통한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li> <li>○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전문가조사 실시 및 분석</li> </ul>																		
주요 연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조사 결과(주체별 기능과 역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조사응답자 수&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전문가 조사 응답자수</th> <th>설문조사 응답자 수</th> </tr> </thead> <tbody> <tr> <td>학계</td> <td>7(24.1%)</td> <td>2(2.5%)</td> </tr> <tr> <td>공무원</td> <td>5(17.2%)</td> <td>39(48.1%)</td> </tr> <tr> <td>현장전문가</td> <td>13(44.8%)</td> <td>27(33.3%)</td> </tr> <tr> <td>유관기관 및 장애인부모</td> <td>4(13.7%)</td> <td>13(16.0%)</td> </tr> <tr> <td>계</td> <td>29(100.0%)</td> <td>81(10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복지재단 :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장애인 통합총괄, 광역/기초센터 지원, 민관협력구축, 장애인복지정책 연구 등임.</li> <li>▶ 광역 센터 : 기초센터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등임</li> <li>▶ 기초 센터 : 대상자 발굴사례관리, 대상별 서비스 제공, 복지자원발굴,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장애인가족 네트워크 등임</li> <li>▶ 장애인복지관 :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대상별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사례관</li> </ul>	구분	전문가 조사 응답자수	설문조사 응답자 수	학계	7(24.1%)	2(2.5%)	공무원	5(17.2%)	39(48.1%)	현장전문가	13(44.8%)	27(33.3%)	유관기관 및 장애인부모	4(13.7%)	13(16.0%)	계	29(100.0%)	81(100.0%)
구분	전문가 조사 응답자수	설문조사 응답자 수																	
학계	7(24.1%)	2(2.5%)																	
공무원	5(17.2%)	39(48.1%)																	
현장전문가	13(44.8%)	27(33.3%)																	
유관기관 및 장애인부모	4(13.7%)	13(16.0%)																	
계	29(100.0%)	81(100.0%)																	

구 분	내 용
-----	-----

리, 장애친화지역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임

<주체별 기능과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지원팀(안)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대상자발굴 ·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장애인복지 통합 · 총괄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대상별 서비스 제공	대상별 서비스 제공
광역 · 기초 가족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개발	복지자원발굴	대상자발굴 · 사례관리
민관협력구축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장애친화지역사회환경 조성
장애인복지정책 연구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장애인가족네트워크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 개발	대상별서비스제공	장애친화 지역사회환경 조성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유관기관 지원	조사 · 연구	전문인력양성및역량 강화	
장애친화 지역사회환경 조성		조사 · 연구	
홍보		프로그램개발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지원팀(안) 기능과 역할 동의여부>

기능	주요내용	동의	동의 안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장애인복지인력 양성 및 교육	91.4	8.7
광역 · 기초 가족지원센터 지원	센터관리, 컨설팅, 협력체계구축, 지원등	90.1	9.9
민관협력구축	지역단위거버넌스, 협력체계구축	92.6	7.4
장애인복지 통합 · 총괄	장애인복지정책통합, 광역단위중간조직역할	86.4	13.6
장애인복지정책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조사, 정책수립	95.1	4.9
유관기관 지원	유관기관지원, 허브기능 등	93.8	6.2
장애친화 지역사회환경 조성	지역사회 장애 통합 환경 조성 등	93.8	6.2
프로그램 개발	사업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88.9	11.1
홍보	장애인식개선, 정보지 발간	88.9	11.1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장애인 ·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85.2	14.8



구분	내 용
----	-----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동의여부>

기능	주요내용	동의	동의 안함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지원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지원	88.7	11.3
네트워크구축 및 강화	거점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초센터 및 장애인복지기관 네트워크 구축	92.5	7.5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가족지원센터 업무 등) 개발 및 보급, 매뉴얼 보급, 정보제공	86.2	13.8
기초센터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기초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및 양성	87.5	12.5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사각지대 영역 지원, 주거지원 서비스 등	82.5	17.5
대상별서비스제공	장애인·장애인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81.3	18.8
조사·연구	장애인가족지원정책 연구	88.8	11.3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동의여부>

기능	주요내용	동의	동의 안함
대상자발굴·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87.0	13.0
대상별서비스제공	장애인·장애인가족 대상 서비 스 제공	88.2	12.8
복지자원발굴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정보제 공	92.3	7.7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유관기관 네트워크(장애인복지 관, 동주민센터, 복지조직 등)	90.5	9.5
장애인가족네트워크	부모회자조모임, 부모회활동	90.9	9.1
장애친화 지역사회환경 조성	장애인 친화마을 운동, 지역사 회 참여제안	91.8	8.2
기초센터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기초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 육 등	81.1	18.9
조사·연구	장애인가족 욕구·실태조사	80.5	19.5
프로그램개발	개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1.8	18.2

구분	내 용
----	-----

<거점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동의여부>

기능	주요내용	동의	동의 안함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유관기관 네트워크(서울시, 기초센터 연계), 서비스 연계	97.4	5.6
대상별서비스제공	장애인·장애인가족 대상, 권역별 서비스 제공	88.2	11.8
대상자발굴·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88.0	12.0
장애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	장애인 친화마을 운동, 지역사회 참여제안	89.5	10.5
프로그램개발	개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8.2	11.8
전문인력양성및역량강화	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등	86.8	13.2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지원팀(안) 추진방향

- ▶ 서울시 장애인복지 통합지원
  - 서울시 장애인 민·관 협력체계 마련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사업지원 및 컨설팅
  - 서울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 ▶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 연구 및 신사업 개발
  - 서울시 장애정책 개발 연구회 운영
  - 서울시 장애인 복지 신규(시범) 사업 인큐베이팅
- ▶ 서울시 장애친화도시 환경조성
  - 장애인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환경조성
  - 장애친화도시 시범사업 기획 및 시범사업

○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추진방향

- ▶ 광역단위 장애인가족 통합지원
  - 광역단위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실시
  - 광역단위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자원 발굴
  - 민·관 네트워크 구축
- ▶ 광역단위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및 보급
  - 광역단위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 광역단위 장애인가족지원 신규(시범)사업 인큐베이팅
- ▶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단위 장애인가족 통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단위 장애인가족지원 체계 구축</li> <li>• 기초단위 온라인 정보시스템 자료관리</li> </ul> </li> <li>▶ 기초단위 복지자원 발굴 및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단위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자원 발굴</li> <li>• 기초단위 장애인가족 맞춤 서비스 지원</li> </ul> </li> <li>▶ 기초단위 장애인가족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가족 네트워크 구축</li> <li>• 기초단위 가족네트워크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li> </ul> </li> </ul> </li> <li>○ 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장애인 통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지원사업</li> <li>•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li> <li>•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li> </ul> </li> <li>▶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li> <li>• 지역사회 복지자원 공유 및 연계</li> </ul> </li> <li>▶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민·민 네트워크</li> <li>• 기초장애인가족센터 업무지원</li> </ul> </li> </ul> </li> </ul>
논의사항	○ 재단 사업팀(장애인가족지원팀) 향후 사업방향성 및 사업내용 논의 필요

## VI.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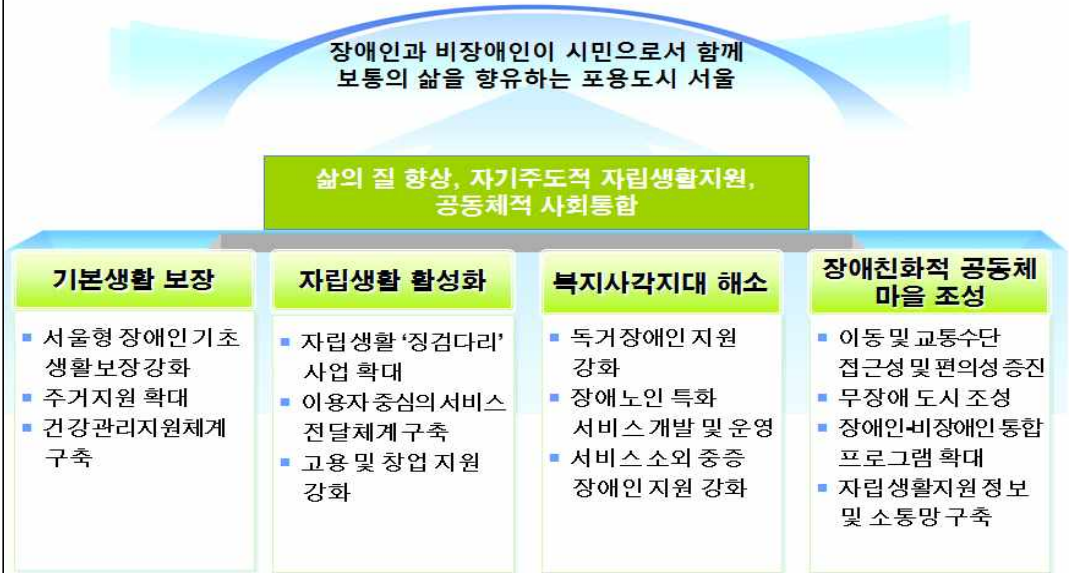
김 현 승

구 분	내 용
연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기간 : 2017년 2월 ~ 10월</li> <li>○ 연구 목적 : 서울시 중증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자립생활 실태 및 욕구 파악,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의 방향성 제시</li> <li>○ 연구 내용 : 소득, 주거 등 11개 영역</li> <li>○ 연구 방법 : 조사원 방문에 의한 1:1 면접설문조사</li> </ul>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공무원 업무회의 6회, 업무보고 3회</li> </ul> </li> <li>○ 자문·실무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3회</li> <li>○ 인터뷰, FGI, 간담회 등 : 조사용역업체 업무협의 5회, 조사원 교육 및 간담회 2회</li> <li>○ 설문조사 : 1680부 실사 완료/최종 분석표본 1540부</li> </ul>
주요 연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전체 장애인구수는 감소하나, 특정 장애유형의 인구수는 증가</li> <li>- 준고령층(50~64세 31.4%)과 고령층(65세 이상 36.6%) 다수 분포</li> </ul> </li> <li>○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식생활과 영양관리 어려운 중증장애인 상당수 존재</li> <li>-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접근성 제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5% 의료기관 이용 불만족(의료진의 이해부족 23.1%, 편의시설 부족 19.5%)</li> </ul> </li> </ul> </li> <li>○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8.8%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이동/교통수단&gt;외출&gt;가사)</li> <li>• 22.2% 도와주는 사람 부재(독거장애인 54.1%)</li> </ul> </li> <li>-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률 25.0%, 적합한 활동보조인 찾지 못해서 미이용 8.0%</li> <li>• 15.6% 서비스 불만족(12.6% 서비스의 질 불만족)</li> </ul> </li> <li>- 정보통신기기 보유율 55.8%, 일상생활 활용율 28.6%</li> </ul> </li> <li>○ 자립생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 금전관리, 사회활동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li> </ul> </li> </ul>

구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장애유형(발달, 뇌병변)에 대한 집중적 지원 필요</li> <li>○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 저조, 근로유인책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 16.9%(뇌병변, 정신 10% 이하), 68.3% '적합한 일자리 부재'</li> <li>• 83.5% 향후 취업의향 없음</li> </ul> </li> <li>-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저해하는 물리적·환경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7% 출퇴근 이동, 23.5% 비장애친화적 작업환경</li> </ul> </li> </ul> </li> <li>○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고립에 처해있는 중증장애인 상당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3% 혼자서 외출 불가능, 14.6% 외출하지 않음,</li> <li>• 52.3% 동거가족 외에 만난 사람 없음</li> </ul> </li> </ul> </li> <li>○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안정성 낮고, 주거비 부담 높음, 열악한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5% 일반 셋집, 8.9% 지하층 거주, 47.6%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li> </ul> </li> <li>- 중증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주거서비스 제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 이상 거주시설, 요양시설 비선호, 19.6% 가족으로부터 독립 원함</li> </ul> </li> </ul> </li> <li>○ 복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서비스 및 시설 관련 정보접근성 제고와 전달체계 재구조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연금 등 제외한 서비스 인지율 50% 이하</li> <li>• 미이용 주된 이유: 38.8% 정보부족, 34.9% 접근성 문제</li> </ul> </li> </ul> </li> <li>○ 소득 및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수준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가구소득 168만원(0제외 171만원), 총 개인소득 48만원(0제외 59만원)</li> <li>•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지출: 15.5만원(교육비&gt;서비스이용료&gt;의료비)</li> </ul> </li> </ul> </li> <li>○ 임신·출산 및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 당시 불안감 높고, 정보접근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1% 자녀의 장애가능성, 32.3% '육아 및 양육' 걱정</li> <li>• 25.2% 임신·출산 및 양육 관련 정보 희망(특히, 시각)</li> </ul> </li> </ul> </li> <li>○ 노후대비 및 노후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생활을 걱정하나, 대부분은 준비할 여력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9% 노후생활 걱정, 12.9% 노후대비 중, 71.7% 준비할 여유가 없음</li> </ul> </li> <li>- 젊은 시절 대비 현재 삶 불만족, 노화로 인해 어려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세 이상 55.2% 본인을 노인으로 인지(뇌병변 69.0%, 시각 66.1%)</li> </ul> </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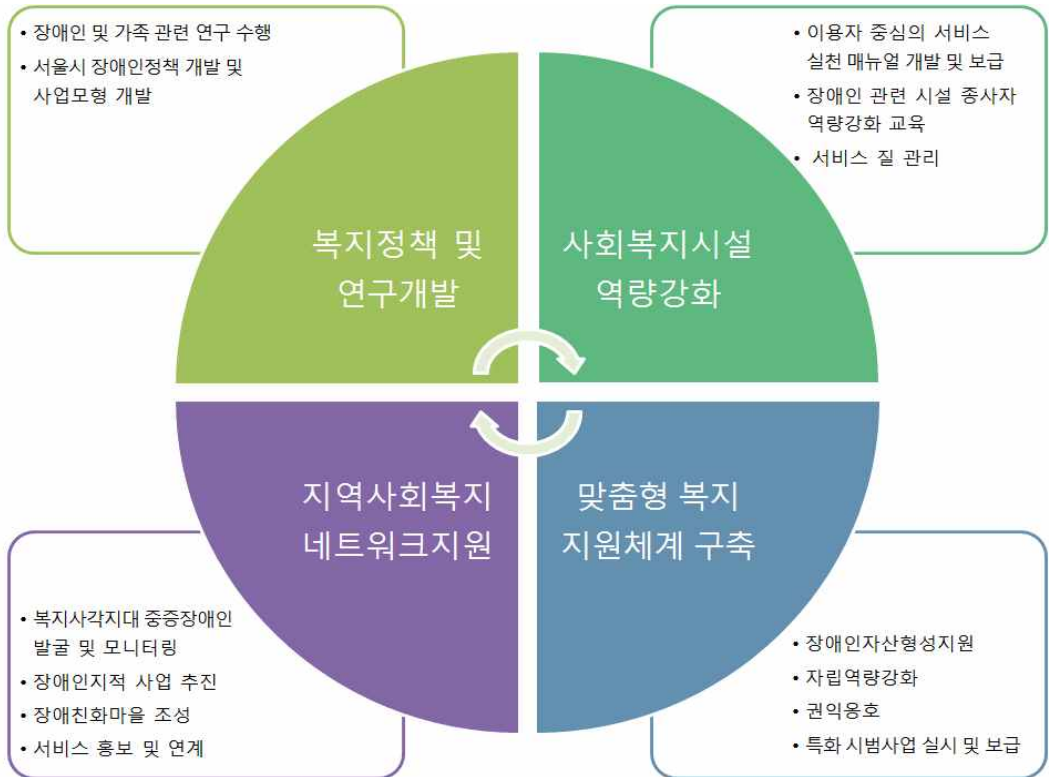
구분	내용
----	----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 서울시복지재단의 역할과 과제

논의사항



## Ⅶ. 서울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 현 승

구분	내용
연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기간 : 2017년 2월 ~ 10월</li> <li>○ 연구 목적 : 서울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 분석을 통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지원체계 구축방안 도출</li> <li>○ 연구 내용 : 장애유형별 주요 이슈 및 요구사항 점검, 서비스 공급 현황 파악 등</li> <li>○ 연구 방법 : '17년 서울시 및 자치구 장애인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분석, 장애인단체 간담회, 장애인 당사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li> </ul>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협의 : 서울시 장애인정책과 업무회의 2회</li> <li>○ 자문·실무회의 :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2회, 현장전문가 2회</li> <li>○ 인터뷰, FGI, 간담회 등 : 장애인단체 간담회 8회, FGI 4회</li> </ul>
주요 연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예산은 약 8조 7천 7백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26조 3천억)의 33.36%임</li> <li>- 장애인복지사업예산은 약 7천 5백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의 8.6%의 비중을 차지함</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최근 6년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구성 비율 추이&gt;</p> <p style="text-align: right;"> <span style="color: blue;">■</span> 저소득  <span style="color: red;">■</span> 여성  <span style="color: green;">■</span> 노인  <span style="color: purple;">■</span> 주거복지  <span style="color: teal;">■</span> 장애인  <span style="color: orange;">■</span> 보건의료  <span style="color: lightblue;">■</span> 교육                             </p> <p>※ 서울시재정포털(<a href="http://finance.seoul.go.kr/">http://finance.seoul.go.kr/</a>) 한눈에 보는 서울시 예산 재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총 예산은 약 8,843억원으로 총 12개의 부서(5본부, 4국, 1실, 2관)가 관여되어 있으며 복지본부의 예산이 6,91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8.09%를 차지함</li> <li>- 장애인 관련 사업 중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3대 영역은 복지시설(32.1%), 재활 및 자립(25.7%), 소득(16.9%)으로 전체 예산의 약 75%(6,611억원)를 차지함</li> </ul> </li> </ul>

구분	내용
----	----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사업은 총 144개로 이중 106개의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며, 40개의 사업이 특정 장애유형으로 분류되는 사업임
- ※ 발달(14개)>정신(12개)>시간(5개)/청각(5개) 등의 순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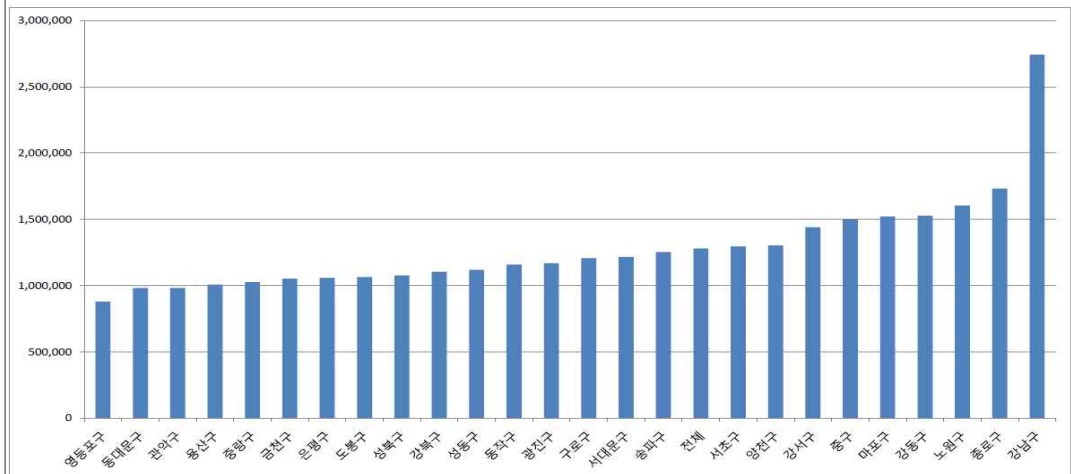
<서울시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

구분	공동	청각	발달	시각 / 신장	시각 / 청각	시각	정신	지적	내부	합계
합계	106	5	14	1	1	3	12	1	1	144
소득	5	-	-	-	-	-	-	-	-	5
고용	12	1	1	-	-	2	1	-	-	17
주거	4	-	-	-	-	-	-	-	-	4
의료 및 건강	7	-	1	-	-	-	8	-	1	17
보육 및 교육	7	-	1	-	1	-	-	-	-	9
재활 및 자립	9	1	2	-	-	-	1	1	-	14
복지시설	24	2	2	1	-	-	2	-	-	31
가사돌봄	4	-	-	-	-	1	-	-	-	5
문화·여가활동	8	-	2	-	-	-	-	-	-	10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	6	-	2	-	-	-	-	-	-	8
이동 및 편의증진	13	1	-	-	-	-	-	-	-	14
장애인 가족지원	3	-	3	-	-	-	-	-	-	6
기타(정보격차해소 등)	4	-	-	-	-	-	-	-	-	4

○ 25개 자치구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

- 총 예산은 5,014억원으로 국비 33.56%, 시비 43.31%, 구비 23.13% 비율로 분담함
- 재정분담률은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구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36.67%)이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중랑구(15.05%)임
- 자치구 장애인 인구 1인당 평균 예산은 128만원으로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이 가장 낮게 나타남 3개 자치구는 강남구, 종로구, 노원구이며, 상위 3개 자치구는 영등포구, 동대문구, 관악구임
- ※ 강남구의 경우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고, 구비 자체 사업을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함

<자치구별 장애인 1인당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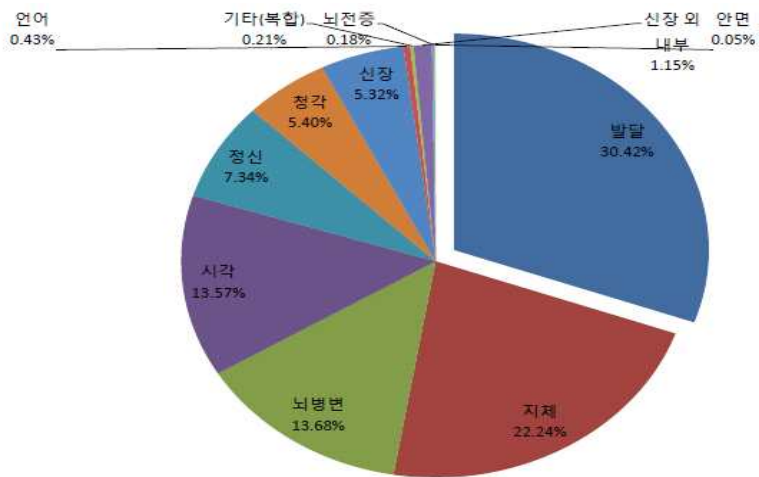




구분	내용
----	----

- 장애유형별 예산비중은 발달 30.42%, 지체 22.24%, 뇌병변 13.68 등의 순이며, 신장 장애를 제외한 내부장애, 뇌전증, 안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함
- 25개 자치구의 장애인 관련 사업 수는 총 1264개로 강남구(69개), 마포구/도봉구(65개), 노원구(64개) 순으로 많으며, 영등포구(36개)로 가장 적음
- 공동사업을 제외한 장애유형별 특화 사업은 발달(74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시각(58개), 청각(54개), 정신(3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치구별 장애인 1인당 예산>



<자치구별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

자치구	공동사업	지체	발달	시각	신장	청각	정신	지적	청각	신장 외 내부	기타	합계
계	920	8	74	58	1	3	37	3	54	-	80	1264
강남구	46	2	2	8	-	-	1	-	2	-	7	69
강동구	41	-	2	3	-	-	1	-	2	-	3	53
강북구	37	-	2	3	-	-	2	-	3	-	3	51
강서구	38	-	2	1	-	-	2	-	2	-	2	48
관악구	38	-	2	3	-	-	2	-	2	-	7	55
광진구	33	-	4	-	-	-	2	-	2	-	2	44
구로구	43	-	1	2	-	1	1	-	1	-	5	55
금천구	29	-	5	2	-	-	2	-	1	-	3	43
노원구	49	-	2	2	-	-	3	-	3	-	4	64
도봉구	44	1	4	4	-	-	2	-	4	-	5	65
동대문구	35	-	2	1	-	-	2	-	3	-	4	48
동작구	39	-	5	1	-	-	1	1	1	-	8	57
마포구	52	-	4	2	-	-	2	-	1	-	3	65
서대문구	45	-	4	4	-	-	1	-	3	-	1	59
서초구	39	-	3	1	-	-	1	-	1	-	2	48
성동구	32	-	3	2	1	-	1	-	2	-	-	42
성북구	36	1	3	3	-	-	1	-	2	-	2	49
송파구	29	1	3	2	-	-	1	-	1	-	3	41
양천구	39	-	2	2	-	-	1	-	1	-	2	48
영등포구	26	-	4	1	-	-	2	-	2	-	-	36
용산구	30	-	2	1	-	-	1	-	2	-	4	41

구분	내용												
	은평구	34	-	5	1	-	-	1	-	1	-	3	46
	중로구	27	-	2	1	-	1	1	-	3	1	3	39
	중구	32	3	3	5	-	1	1	2	5	1	2	55
	중랑구	28	-	3	3	-	-	2	-	4	1	2	43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유형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필요</li> <li>○ 서비스 소외 장애유형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li> <li>○ 자치구 간에 서비스 공급량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자치구의 장애유형별 인구수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충</li> <li>-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 시비 추가지원 확대</li> </ul> </li> </ul>												